



문화매일신문



경북도,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힘 모은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구미시·7개 연구기관,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상호 협력 반도체산업 핵심기술 발굴·인력양성 및 R&D 전문인력 교류



경상북도는 지난 29일, 구미시청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구미시와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구미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업무협약은 △(기술개발) 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 발굴·개발·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R&D 전문인력 교류 △(기반운영) 생태계 조성 위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기반 운영 △(지원 사항) 기술개발·인력양성·기반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지난해 10월 4일 출범한 '경북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장' 으로부터 특화단지의 육성 방안과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해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정부에서 총 622조 원을 투자해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권을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로 조성한다는 발표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방 유일의 경북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수도권인 용인·평택과 함께 지역에선 유일하게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경상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 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3가지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인재들이 양성되어 지역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말 경제부지사는 "우리 경북이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재양성 등 기술력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경북도와 구미시에서도 특화단지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저소득 취약가족 민생 현장 챙겨

영광 한부모·다문화가족 생계살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영광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다문화 가족을 방문해 생계를 살피었다. 이는 최근 폭설과 한파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과 민생을 돌보기 위해 이뤄진 현장 방문이다. 현장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오미화·장은영 전남도의회 의원, 고봉주 영광군 가족센터장도 함께했다. 방문 가족은 베트남 출신으로 슬하에 3남매(2년 1남)를 둔 가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김영록 지사에게 "저소득 한부모 생활지원금을 인상(수급자 3만 원→5만 원)해주고, 다문화 자녀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구입, 학원비 등 지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낯선 타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며 어머니라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다문화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올해 378억 원을 들여 한

부모자녀 양육비(자녀당 월 21만 원), 저소득한부모 생활지원금(월 5만~7만 원) 등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좀 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7천550세대 1만 9천429명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위해 134억 원을 들여 다문화교류 소통 공간,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특성화사업, 다문화 엄마 학교 등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다문화 가족은 1만 5천666세대 5만 1천131명이다.

박종배/기자



경기도 김동연, '도민청원 1호' 해결한 동인선 건설 현장 찾아

김동연 지사, 도민청원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 찾아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왕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 달라.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 정거장 18개소의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45분 안팎으로 소요됨에 따라 일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되자 수원·화성·안양·의왕·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지난해 1월 '동인선 5공구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건의하겠다"면서 5개 시 주민들과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

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또 5개 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1공구 현장점검에 이어 안양관양시장을 찾아 이충환 경기도생안연합회장, 박동성 안양관양시장상인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범상/기자

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또 5개 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1공구 현장점검에 이어 안양관양시장을 찾아 이충환 경기도생안연합회장, 박동성 안양관양시장상인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범상/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공감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추진" ... 끊임없이 소통할 것

29일(월) 오후 2시, 직원 350여 명과 '2024년 신년 직원정례조례' 개최

오세훈 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직원정례조례에서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은 서울시를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29일 14시 서울시장(8층 다목적홀)에서 시(市) 본청, 사업소 등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직원정례조례'를 개최했다. 올해 정례조례는 '매력 서울을 향한 값진 동행'을 주제로 오 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시장단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자유롭고 편(Fun)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먼저 오 시장은 '사랑이 넘치는 동행·매력 특별시 만들기'를 주제로 약 20분간 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 첫 단계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는 생각과 소통, 새로운 시도와 교감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라는 '창의행정'을 강조했다. 실제로 '2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창의제안이 지난해 10배 이상 늘어난 1,577건에 이르렀다며 특강에 이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



감대 형성 프로그램 '도전, 서울 골든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서울시정과 그 외 사회적 이슈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총 33개 팀(330명)이 참여했다. 도전 골든벨 사회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0월 선발된 1대 서울시 공무원 유튜버인 서유배 정규현 주무관이 맡아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최광수/기자

감대 형성 프로그램 '도전, 서울 골든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서울시정과 그 외 사회적 이슈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총 33개 팀(330명)이 참여했다. 도전 골든벨 사회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0월 선발된 1대 서울시 공무원 유튜버인 서유배 정규현 주무관이 맡아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 성금 전달

29일 연예인 이상용 씨 1000만 원·NH농협은행 1억 원 기탁

충남도는 29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연예인 이상용 씨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성금 1억 1000만 원의 화재 피해 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태홍 지사와 이상용 씨,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장,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성우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용 씨는 1000만 원을, NH농협은행은 1억 원을 각각 기탁했으며,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기탁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받은 도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도민을 위해 솔선수범 나눔을 실천한 이상용 씨와 NH농협은행에 감사사를 전하고 피해 도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씨는 "서천에 가면 꼭 들리던 시장인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이웃들을 생각하니 잠이 안 와 달려왔다"라며 가슴 깊이 위로를 전하고 "우리 고향 이웃들이라 우리집이 불난 것 같이

충남도는 29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연예인 이상용 씨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성금 1억 1000만 원의 화재 피해 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태홍 지사와 이상용 씨,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장,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성우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용 씨는 1000만 원을, NH농협은행은 1억 원을 각각 기탁했으며,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기탁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받은 도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도민을 위해 솔선수범 나눔을 실천한 이상용 씨와 NH농협은행에 감사사를 전하고 피해 도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씨는 "서천에 가면 꼭 들리던 시장인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이웃들을 생각하니 잠이 안 와 달려왔다"라며 가슴 깊이 위로를 전하고 "우리 고향 이웃들이라 우리집이 불난 것 같이



가슴이 탄다.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민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며,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음 달 16일까지 모금한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재난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안전충북 실현에 총력

충청북도는 29일 김영환 도지사 주재로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실국 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34종에 대해 점검하고,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이재민 구호, 재난관리지원 비축응원, 의료지원, 방역소독 등 협업관할 역할 숙지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했다. 특히, 지난 충북도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많은 수의 직원이 변동되어 관련 부서 및 담당자별 빠른 업무숙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각종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충북도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비해 총 34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19개 부서에서 주관, 관리하고 있다. 한편, 주요 점검사항으로 대설 시 항공기 결항지연에 따른 체객 발생과 한파 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응 강화를 위해 협업부서 비상근무 단계를 초기대응 단계부터 강화할 계

충청북도는 29일 김영환 도지사 주재로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실국 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34종에 대해 점검하고,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이재민 구호, 재난관리지원 비축응원, 의료지원, 방역소독 등 협업관할 역할 숙지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했다. 특히, 지난 충북도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많은 수의 직원이 변동되어 관련 부서 및 담당자별 빠른 업무숙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각종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충북도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비해 총 34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19개 부서에서 주관, 관리하고 있다. 한편, 주요 점검사항으로 대설 시 항공기 결항지연에 따른 체객 발생과 한파 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응 강화를 위해 협업부서 비상근무 단계를 초기대응 단계부터 강화할 계



고정화/기자

박용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 5,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월 26일(금)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

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기자동차, 드론 등에 배터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기반조

성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구축과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2023)'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2,089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배터리 핵심원료 확보를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마련과 체계적인 육성은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박용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산업클러스터화'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2월 2일(금)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안양시의회,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안양시의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 동안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허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시에서 제출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룬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지난 1월 29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서는 양양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진행됐으며, 최대로 시장으로부터 2024년 시정 계획에 대한 연설을 청취했다. 최병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시정계획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공직자들은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성장용 의원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지난 26일,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성장용 의원(국민의 힘, 사하구3)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정채숙 의원)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 부산시 도시브랜드와 부산시 상징물과의 차이점이 모호하고, 조례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성장용 의원은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처럼 상징물,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두 가지 조례가 있는 특·광역시는 없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성 의원은 "문제되는 두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등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해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많아, 상징물과 관련한 사항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산시 행정재산인 상징물에 관한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김희태/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위, 도농생명축산식품국 등 업무보고 청취

동물위생시험소 7급상당 결원 25명, 고질적인 인력 문제 대안마련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9일 제406회 임시회 기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기술원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농산경위위원회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상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부도처리로 인하여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사업자 선정 시 해마다 동일 업체 지원 방지 방안 및 보조금 수혜 시 일정부분 사회적 환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기술원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농촌 인력난과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파악은 시군별로 정확히 하고 있는지의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외국인 1근로자 이탈방지 방안 마련 및 전북 농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40세~45세 미만으로 한정된 것은 그 범위가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령 대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정착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우선 핵심 산업으로 농생명산업(12개 특례)을 내세우고 있으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과제로 지정했으나, 해당 과제가 과연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다."라며 "농민소득 최하위,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 지표상 수치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농촌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폭넓은 특례 발굴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적했으나 개선이 안 되는 부분 중 대표적인 것이 동물위생시험소의 결원문제이다."라며 "특히 7급 상당은 25명이나 부족한 상황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직원들이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호소하는데 해마다 지원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요안 의원(완주2)은 "노동착취 논란에 필리핀 정부는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 등의 문제점이 궁금하다."며 "도에서도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대처

이남출/기자

대구시의회 "50년 이어온 시(市) 금고 독점, 평가 방법 및 절차 손 본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024년도 첫 회기인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해 왔으며,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여,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채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신설,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

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며,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이천시의회 2024년 첫 입법설명회 개최

이천시의회가 29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입법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년 새해 입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입법설명회는 조례 입안의 적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 등을 최종 발의에 앞서 검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규칙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1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학원협의회 '이천시 임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조가 시책 지원 조례안' ▲김재현 의원의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

의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진도 의원의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이다.

한편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다.

김병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케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

경기도,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

고 있다. 만약에 분리한다면 서울에 있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360만의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을 예로 든 김 지사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노무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되새기는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에 앞서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소순창 건국대 교수, 강현수 중부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진중헌 공주대 교수, 민기 제주대 교수의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토론은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의 및 균형발전정책 20년 평가’에 대해 김두관·송재호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성경룡·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발전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로 행사 마

막을 장식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발전 전략 정책 연구용역과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속의공론조사, 시군 순회 설명회 등 100여 회에 걸쳐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아울러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 의했다.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 중이다. 또, 북부특별자치도 공동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9일 ‘안양산업진흥원 입주기업 현장 정담회’ 참석

“중소·벤처기업은 도미래성장의 핵심, 세계로 향하는 큰 꿈 지지할 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정담회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화장품·친환경포장재·방역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기업 대표 8인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했다. 염 의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면서 ‘기업 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 듣는다”라며 “그럼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러분이 희망을 품고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새해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 경제의 뼈대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확고

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1조 원 규모의 ‘G-펀드’ 조성부터 각종 정책자금이나 투자 지원 등 경기도는 중소기업 성장과 생존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 뒷받침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 미래 성장의 핵심이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경기도의회 여야와 경기도 모두가 한뜻이다”라며 “민생이자 지역경제 그 자체인 여러분이 경기도와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그 꿈을 지지할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행사는 의장 및 산업진흥원장 인사말, 현안 공유, 기업 소개, 정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범상/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경기여성지방의원협의회(경여협) 정담회를 주최했다. 정경자 의원은 작년 2월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출범식을 통해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전국 여성지방의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날 정담회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경기지역 여성 지방의원들이 함께 모여 광역, 총선 필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광역·기초여성의원들은 지역별 정세와 핵심 현안을 브리핑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정책현안으로는 ▲ 저출생 정책, ▲ 광역교통망구축,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정년연장, ▲ 청년자

립 지원 ▲ 서울편입과 북부균형발전, ▲ 유보통합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다루었다. 이어 자리에서 정경자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국 여성의원들이 생활밀착형 정책, 지역별 우수한 공약을 발굴해 내고 있다. 여성 의원의 섬세하고 강력한 힘을 응집하여, 총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현명한 MZ세대는 객관적 데이터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투표한다. 지역별 현안의 구체적 파악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정책이 되어야 한다. 사즉생(死即生)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승리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주기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납득이 안되는 공천은 없을 것이며,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공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6.1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소속되어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파주병원 찾아 의료진들의 신뢰와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개발해야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26일 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장애인 체육 현실이 부각된 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사회적·환경적·개인적 스트레스

해소를 촉진한다”고 말한 뒤 “체육활동이 장애인들의 자존감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기에 조례 정비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제한된 활동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운영방법 개선, 경기방식 변경, 규칙 완화 등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최종락 道 체육지원팀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에서도 자원봉사자 지원방안, 안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해 수 차례 내부 협의를 한 바 있어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사회복지, 문화복지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근간이 되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도록 집행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충식 의원이 주관한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락 경기도 체육지원팀장, 허병영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최숙경 포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후 구급차 교체 예산 1억원 확보

파주병원 찾아 의료진들의 신뢰와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개발해야 주문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3년 4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시절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현황과 경기북부 의료실태 점검을 위해 첫 번째 방문 이후 2번째 방문이다.

첫 방문 당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구급차는 10년 사용으로 많이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기였고, 파주병원은 23년 3월 국고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안에 반영시켰고, 경기도 예산 구급차 교체 비용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지원하기로 결정 됐다.

고의원은 “구급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제1선의 의료 장비로 보아야 한다.며 구급차는 절대로 길 위에 고장으로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원은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파주병원이 새로운 의료 시스템과 환자 편의 서비스 개선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의료원으로써 의료진들의 신뢰와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 업무 보고회 개최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인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



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2024.1.11.~31.(2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24. 2월 임시회 조례 상정 추진 할 계획에 있다.

김범상/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 및 북동권역 소상공인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 및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상임이사, 최

은영 북동센터장 및 금곡흥유류상점가상인회 이희문 회장, 다산상인회 전지영회장, 물골안상인회 김명남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남양주시지부 이은재 회장, 진건상인회 한상현회장, 퇴계원역자골목상인회 정형구회장, 평내호평상가번영회 김훈회장, 호평상인회 이순이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골목상권에 대한 선별적·체계적 지원,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등 총 27종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이병길 도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해 골

목상권의 조직화, 성장화, 우수골목, 특성화 등의 체계적 지원에 53억 4천여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43억 원,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의 단계별 지원에 159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남양주시 지부 및 골목상권상인회 회장단과 새해 계획에 대해 환담하고, 2024년에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당부했고,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선진농업·농촌 건설에 앞장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

여주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농업 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지도자 회원들과 내빈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18대 농촌지도자 여주시 연합회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하는 회장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전했으며, 이임하는 서재호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제16·17대의 6년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준 회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취임하는 김현태 회장은 "그동안 선배 회장들이 다져놓은 업적을 이어받아 새로 구성된 제18대 시임원을 비롯한 읍·면·지구 농촌지도자 전회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여주농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농촌지도자가 2023년 9월 경기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연찬회와 교육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여주시 농업의 리더로서 자긍심을 갖고 말은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는 1973년 조직구성을 시작으로 김현태 회장까지 제18대의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 현재 6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학습단체이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2027 전국종합체육대회 유치계획 보고회 개최 및 현장실사

화성시가 2027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유치계획 보고회를 29일 화성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명근 화성시장 및 대한체육회 유치실사단,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계획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작년 10월 전국체육대회의 경기도 주 개최지로 선정돼 경기도 대표로서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 중이며, 최종 개최지 선정은 실사 이후 3월경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2027 전국종합체육대회 최종 개최지로 선정 될 경우,

화성시는 2027년 전국체육대회,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주 개최지로 선정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경기도가 선정된다면 화성시는 전 국민의 화합에 기여하겠다"며 "대회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실사단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화성종합경기타운 및 화성 스포츠클럽, 반월체육센터, 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 등 화성시 체육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창업 실패자 재기 돕는다"

총 7개 팀(명)·사업화 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성남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 특별도시 성남' 조성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년에 멘토링, 창업 교육,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지원 규모는 7개 팀(명)이다. 참여 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창업한 적이 있는 19~39세의 예비 재창업자와 1년 이내 재창업자다. 팀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다.

혁신 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창조해 제품이나 서비스

를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기술 창업을 지원한다.

기업진단을 통해 필요한 전문가를 매칭하고서 약 3개월간 사업계획서 고도화, 사업자 법인 전환 등의 창업 교육, 팀별 유사 사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시는 서류·발표 평가로 7개 팀(명)을 선정 한 뒤 오는 6월 중 성남글로벌 창업 프렌드센터에서 창업 프레젠테이션(PT) 대회를 열어 대상 3000만원,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준다.

나머지 4개 팀은 각각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김범상/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더플러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6일 더플러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플러스병원을 광주시장애인체육회를 대상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체육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상호 협력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방세환 시장과 남윤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상욱 더플러스병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환자에게 진료 절차와 편의 제공(진료예약, 검사예약, 입원 시 병실 우선 배정 등) △최신 의료정보 제공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협

력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병원장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에 대한 폭 넓은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대표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더플러스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 장애인 선수들에게 양질의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2024년 1분기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수원시에 거주하는 육아 중인 여성 10명, 2월 5일까지 모집

수원시가 육아 중인 여성의 마음 건강을 돕는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의 참가자 10명을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육아 중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휴)가 주관하는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은 육아 중인 여성의 스트레스·우울감을 해소하고, 공감 역량을 키워주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은 장안구 천천초소년문화의집에서 2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정오까지 총 8회 진행된다.

4개 구 순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2분기, 3분기에는 자녀를 동반하는 참가자가 아이사랑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2개 육아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육아로 지친 여성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며 "12월에는 맘 치유회복 프로그램 참여자 가족과 육아 중인 아빠들이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구분	구분	구분
1차(2월 7일)	2차(2월 14일)	3차(2월 21일)
4차(2월 28일)	5차(3월 6일)	6차(3월 13일)
7차(3월 20일)	8차(3월 27일)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전년 대비 17.6% 늘어난 27억원 지원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단지 내 도로·승강기 보수교체·공사 등 대상

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 260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원으로 정하고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특례시청 1층 별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청년 재창업 지원

신청기간 2024. 1.26.(금) ~ 2024. 2.12.(월)

신청자격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에서 창업했던 19~39세 (예비) 재창업 청년

모집분야 기술창업 분야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3천만원), 창업 교육, 멘토링 제공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④ 주민등록초본

신청방법 이메일(snjob@korea.kr) 제출

문의사항 청년청소년과 ☎ 031-729-8763

*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시정소식 > 고시공고 > 달간공고)

★ 성남시

이천시, 2024년 첫 확대간부회의 새로운 시도로 '눈길'

이천시는 29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새해 첫 '6급 이상 확대 간부회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기적으로 매월 한 차례 진행되는 간부회의는 앞으로 기존 단순 업무보고 회의방식을 탈피해 부서별 주요 현안 보고와 공약 추진사항 등 공유가 꼭 필요한 핵심 안건을 선정해 업무보고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보고 이후 시간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천시 시정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초성하여 이천시가 나아가갈 방향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6급 이상 관리직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배양하여

품격있고 발전적인 이천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김경희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서 김기영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과 교수가 '브랜드와 지속적인 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기영 교수는 이마트 노브랜드 기획 및 브랜딩 총괄을 지낸 인물이다.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닌 소비자"라는 파격적 메시지로 등장해 2016년 76억이던 매출이 2020년 1조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냈다. 이뿐 아니라 한때 대한민국을 열풍을 일으킨 '허니버터칩'을 브랜딩해 대히트시키기도 한 최고의 브랜드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교수는 브랜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기존 지방자치단

체의 브랜드 사례와 자신의 노브랜드와 허니버터칩 등 브랜딩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은 바로 디자인과 브랜딩에 있다며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실험과 관점의 변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그동안 일상 업무보고 위주의 간부회의의 틀을 바뀌회의 시간에 전문가를 초청해 여러분들의 교육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는 급격하게 변하는 대내외 시정환경에 대응해 관리직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 이천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뀌면 이천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재정위기 극복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 긴급 보고회' 개최

하남시가 29일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긴급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점인 5월 31일 내에 하남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서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하남시의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23년 3회 추경대비 16%가 감소한 8,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50억원 등 지방세 총 428억원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가 2023년 51.5%에서 2024년 47.7%로 3.8%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T/F를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시는 2월 중 국·과장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준비사항 점검회의와 관련 부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2년간 국회의원과의 의원 협력을 통해 특교세, 특조금을 비롯한 국·도비 예산 275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확보를 위해 힘써준 김성수 도의원(110억원), 윤태길 도의원(66억원), 오지훈 도의원(40억원) 3명의 도의원에게 지난해 연말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 해결과 하남시의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국·도비 예산 적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서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의회 시정연설 "경부선 지하화 등 시민과 함께 미래 개척"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열린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부선 지하화' 준비 등 시민과 함께 안양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14년 전 처음 공약으로 제안했던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성장의 희망이 될 경부선 지하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평촌신도시를 새롭게 그려 나갈 토대도 마련됐다"며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한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교도소 이전,

시청사 부지 신성장 산업 유치 등 안양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과업을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GTX-C노선·신안산선·월곶판교선·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신축 이전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양1번가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 개관 ▲장애인 복합문화관 개관 ▲관

양 다목적 복지회관 개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개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어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늘 그랬듯이 확고한 비전과 자신감으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우용/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박승원 광명시장이 29일 (사)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로부터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과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힘써준 데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전달식에는 김영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과 협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5억 4,500만 원을 들여 '광명시 시청로 일원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해 34개 건물 106개 업소의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광고물 등 입점 상점 간판을 일제히 정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장으로서 당

연한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주신 광명시 광고협회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확산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간판 개선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고 개선 효과가 큰 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동일/기자



안산시 공직자 청렴실천 서약... '청렴 모범 안산' 조성

안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청렴 모범 안산' 조성을 위해 2024년 공직자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간부공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장, 안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규 공무원 등 30여 명과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청렴 풍선 퍼포먼스를 통해 의지를 다졌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줄곧 청렴한 행정이 기본임을 강조하며 ▲간부공무원 청렴 대책회의 및 청렴서약 결의 ▲부패행위 모의신고 훈련 ▲공직자 청렴주간 지정 운영 ▲청렴공감 한마당 등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

향상 및 직원 참여 확대와 소문 중심의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물론, 청렴노력도 부문은 기초단체 평균 대비 11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올해의 경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부문에서 1등급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 공감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산시 산하기관들도 시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청렴문화 동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렴은 공직자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중 하나로서, 시민과 함께 지켜 나가야 할 덕목"이라며

"우리의 다짐을 통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청렴 모범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전남도, 서울역서 고향사랑 열풍 이어가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오프라인 홍보 이벤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9일 유동인구가 많은 서

울역에서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함께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과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남도장터·전남 사랑애 서포터즈·기부제도 등 홍보활동

이날 행사에선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 143억 원 보급,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43만 명 가입 등 성원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올해는 더욱 풍성한 답례품과 혜택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지자체 공무원이 고향사랑 캠페인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전남이 고향은 아니지만 서포터즈에 가입해 전남 여행도 가고 고향사랑기부도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강윤성)도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윤성 회장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위한 일

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귀성객들께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을 보내면서 고향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만 명을 목표로 모집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모집 1년여 만에 가입자 43만 명을 돌파했다.

박종배/기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 함평군 양파 기계화 단지 고충해결 나서

함평군은 지난 24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이 함평군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단지를 방문하여 기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양파 기계화 단지의 고충해결에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명수 원장은 양파 기계화 재배 농가를 방문하고, 양파 기계화 재배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민관의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정시기, 굴취기의 중소형화 개발, 물·비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멀칭 재배기술 등의 현안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파 기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육묘 매뉴얼 보급 등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기계화 재배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군은 밭작물의 75ha에 대한 기계화 정식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총면적 85ha 이상을 목표로 기계화 정식을 추진하는 등 밭작물의 생력재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앙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평군 농가를 격려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상생의 가치 담긴 남원시 사회적경제 설 명절 선물세트로 마음 전하세요”

남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공동 기획 선물세트 40선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서덕교)와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총 12개소가 준비한 선물세트 40종 공동 홍보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지리산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깨끗한 농산물에 손맛을 더한 전통 디저트와 양념류, 추어탕과 김부각, 전통주까지 풍성한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로컬 농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서 상생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선물이 될 듯하다.

다양하게 구성돼있는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설 선물세트를 소개한다.

♯뽕안 햅쌀 떡국과 명가의 도토리묵으로 차례상을 품격있게

사회적기업 ‘메밀꽃피는향아리’에서 떡국떡과 모차렐라 치즈가래떡, 떡볶이 소스를 포함한 종합 세트를 출시했다.

모든 떡을 15일 이내 도정한 햅쌀로 만들어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고, 원유 99% 자연치즈를 사용해 고소한 풍미가 그만이다.

떡국떡이 포함된 가족세트와 떡볶이 키트 전용으로 구성된 간식세트 2종류가 있다.

예로부터 집에서 직접 쪄 도토리묵은 명절이나 잔치상 별미였다.

전통 수제 비빔을 살려 곡산 도토리묵을 만드는 ‘지리산맑은물총향골영농조합’은 3대째 이어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명가 기업이다.

국내산 재물이 도토리로 만든 참묵과 건조목을 활용한 즉식 잡채, 우무채 밀키트는 추억의 맛을 그리워하는 어른들부터 바쁜 직장인과 워킹맘까지 두루 만족할 건강한 먹거리다.

1만원대부터 3만원까지 5종류의 다양하게 구성된 별미세트를 선보인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달콤한 주전부리는 차례상에도 가족 모임에도 풍성함을 더해준다.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잡곡으로 강정 과 조청을 만드는 웅치마을에서 만능 간식 에너지바를 출시하여 눈길을 끈다.

직접 튀긴 곡물 튀밥에 각종 부재료를 버무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

지리산향치마을영농조합은 유기농 쌀로 수제 누룽지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다.

지리산 산나물에 유기농 당근을 첨가한 ‘산채누룽지’와 ‘발아현미조청’은 황치골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이다.

♯소문난 남원 특산물, 김부각과 추어탕은 인기 만점

남원의 대표 먹거리 김부각은 반찬으로, 간식으로, 안주로 언제나 환영받는 멀티 아이템. 지리산 해발 500미터 청정지역에 위치한 (유)하이오백의 김부

각은 두툽한 찹쌀꽃이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극대화해서 ‘금’부각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남원김부각협동조합에서 만든 ‘한선생 부각 3종세트’는 한입에 쏙 들어가는 스낵 부각으로 인기상품이다.

전통 김부각에 다시마 부각, 황태김부각을 더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이 만든 선물세트는 구수한 추어탕 한 뚝배기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0% 국내산 미꾸라지와 시래기, 들깨가루와 전통 된장으로 끓여낸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추어탕과 장어탕, 1인용 추어탕 세트 구성도 다양하다.

♯정경 지리산을 닮은 정갈한 기름과 프리미엄 전통주 일교차가 큰 지리산 고령지에서 재배

한 참깨와 들깨는 예로부터 알이 실하고 향이 진하기로 유명하다.

지역에서 계약재배하여 믿을 수 있는 원료로 가공한 참기름과 들기름, 생들기름은 고소한 향이 살아있어 요리의 맛을 한층 높여준다.

마을기업 흥마을영농조합은 3만원에서 5만원대로 다양한 구성의 기름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사회적기업 지리산처럼영농조합이 선보인 ‘오메가3 선물세트’(16,000원)는 건강식으로 좋은 생들기름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1회용 스틱으로 가공하여 눈길을 끈다.

또한 참기름, 들기름과 들깨가루, 천연소금을 한 박스에 모은 ‘프리미엄 선물세트’(52,000원)는 정성스런 종합선물로 스테디셀러다.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즈에서는 청년들이 만든 수제맥주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바이젠과 페일에일, 라거, 스타우트 4종으로 개성이 살아있는 풍성한 향과 목직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

맥주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마을기업 (주)비즈양조는 남원 지역의 넓은 평야 금지면에서 생산한 쌀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한다.

4년에 걸쳐 양조하는 고급 기법으로 담은 ‘비즈술’(30,000원/4병입)은 도수 13도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탁주로 쌀의 풍미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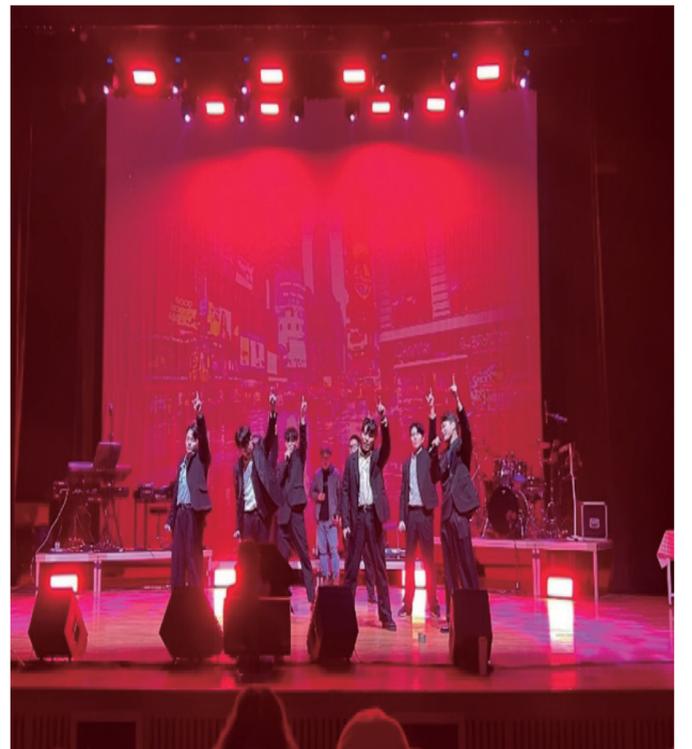
신제품으로 출시한 ‘화동원(42도)’(25,000원)는 최근 주류 시장에서 고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순수 쌀 증류주이다.

한편 이번 선물세트는 오는 2월 1일까지 주문 접수 가능하며, 택배 배송 마감일은 2월 2일 이다.

이남출/기자

순천 청년을 부탁해! 맞춤형 청년지원 사업 본격 시동

생활안정, 자산형성, 문화복지,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8개 청년지원사업 추진



순천시는 ▲생활안정 ▲자산형성 ▲문화복지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9개 사업에 91억원을 투입해 관내 청년들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든든한 생활안정 기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남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는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49세 이하 신혼부부 및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인 부부가 대상이다. 주택구입대출자금을 월 15~25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남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 및 무주택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대출이자 지원은 월 10만원, 주거비 지원은 월 20만원 지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전년보다 6개월 늘어난 1년으로 연장하고 신혼부부들에게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은 도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이하인 청년이 지원사업 대상자이다. 무주택 근로 청년과 순천시(전남도)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돌려받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다만,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은 일몰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신규 신청 없이 기존 선정자들에게만 지원한다.

▶ 청년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문화복지 혜택 마련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19세~28세)에게 2023년보다 5만원 증액된 1인당 25만원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2월에 모집공고 후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중 광주은행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 공동체 육성 발굴을 통한 청년 역량강화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여 과업 수행비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활동 여건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2월 중 공고하여 공동체를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 결혼, 문화생활까지 연결하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나주시, 초등생 영어캠프로 ‘재미와 실력’ 둘 다 잡았다

동신대 국제교육원서 2주간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 동신대 국제교육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방학 영어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NAJU, Heart of world’를 주제로 열린 캠프는 나주의 역사와 명소를 영어로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으며, 체육, 미술 등 예체능을 영어와 접목해 신나고 즐겁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영어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및 면접에 따라 수준별 4개반으로 편성했으며, 모든 수업을 원어민 교사들과 영어로 실시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였다.

지난 2012년 200명의 입소로 시작된 외국인 캠프는 이번 겨울까지 총 2754명이 수료했으며, 시는 캠프 의

에도 해외 어학연수,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등 회화 중심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관내 중학생 2학년 30명도 미국 메릴랜드주 현지 학생과 합동수업, 홈스테이, 명문학교, 명소 탐방 등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귀국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방학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더욱 탄탄히 다져 미래의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영어캠프 수료식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캠프 생활을 담은 동영상 시청, 우수학생 시상, 축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안/기자



김영안/기자

“국민에게 큰 사랑 받은 화엄사 흥매화” 국가유산 “구례 화엄사 화엄매”

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1월 24일 화엄사 흥매화를 문화재 지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흥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이다. 문헌에 의하면(지리산 화엄사 이야기, 진조스님, 2021) 화엄사 흥매화는 “일명 장옥매(丈六梅), 각황매((覺皇梅), 화엄연화장 세계에 있다고 하여 화엄매(華嚴梅), 각황전 삼존불(아미타불, 석가모니, 다보불)을 표기하여 삼불목(三佛木)”이라고 했다.

국가유산 사적이자 명승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1호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는 국보 5점과 보물 9점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번 확대 지정에 포함된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노거수인 “구례 화엄사 울벚나무(지정 일자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1주와 “구례 화엄사 매화(들매화, 지정 일자 2007년 10월 7일. 천연기념물)” 1주를 포함한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사중 대표하여 흥매화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되는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님들과 함께 흥매화에 머리 숙여 예를 올렸다. 더불어 흥매화가 천연기념물 지정됐다는 소식에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불교문화상 수상자인 윤당 현중순 선생이 지은 ‘거룩하신 법신 각황매여! 라는 찬시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 했다.

“자비의 심지로 뿌리내린 4백년 세월, 당신의 이름은 각황매, 당신의 나이만큼 각황전을 지켜 온 부처님의 제자, 대선사여! 기다림을 아는 흔적이 실체되어 꽃으로 피어나고, 범종소리 가지 끝에 달을 적 마다 마디마디 염주알 같은 꽃망울에 맺혔다가 법공으로 붉게 핀 꽃 굳은 절개의 꽃이여! 나 어느때 쫓 당신과 맞닿을 법음을 알려 나 어느때쯤 잉어의 비늘같은 허물을 벗고 지리산 대수에 바람이 일 듯 지고지순한 당신을 우러르며 살까, 사바의 고통을 꽃잎으로 날려 보내며 중생의 고통을 새순으로 틈게 하는 희망의 꽃, 자비의꽃 흥매화여! 각황매여! 거룩한 법신이여!”

화엄사 흥매화를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화엄매”로 지정한 사유에 대하여서는 1. 화엄사 흥매화는 3월 초 중순경 검붉은 화색과 두줄기가 꼬인 수형으로 국민들이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꽃이 피며, 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무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사랑받고 있다.

2.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목의 줄기나 가지의 생육이 굴곡을 만들면서 위로 또는 밑으로 자라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 등과 비교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다.

3. 기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순천 선암사 선암매, 강릉 오죽헌 울곡매, 구례 화엄사 들매화, 장성 백양사 고불매) 중 검붉은 꽃은 화엄사 흥매화 뿐이다.

4. 화엄사 흥매화를 중심으로 올해로 4회째 흥매화 사진찍기 대회 등을 통하여 화엄사 흥매화의 경관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어 흥매화 활용에 성공적임을 평가했고, 특히 각황전(국보 67호)과 석등(국보12호) 등과 연결된 사찰의 포괄적 대표 경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게 높게 평가 됐다.

5.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화엄사 흥매화는 국가유산의 근·현대 식물유산 발굴 차원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며 화엄사의 대표 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경관 보존 등을 위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상의 기본 원칙인 문화재 보존·활용 간 조화와 균형을 따라, 기존 “구례 화엄사 매화(들매화)”의 고사(4주 중 1주만 남음)와 수세 저하에 따라 화엄사의 대표 식생 경관인 흥매화의 상호 보완적 보호 체계 관리가 시급하여 화엄사 흥매화를 국가유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관광의 효자 역할을 하는 화엄사 흥매화가 천연기념물이 된 것은 전 군민의 경사”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유산의 소중함이 널리 알려지고 흥매화가 더욱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현/기자

【2024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 전북도, 지속 이용발전 가능한 에코힐링 1번지 조성 박차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확대 및 산림재난 도민안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은 1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지속 이용·발전 가능한 에코힐링 1번지 조성’을 올해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면서, 유해환경 요소에 대한 예방관리와 선제적 물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생태·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으로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가계획과 연계하면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실가스 다배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나 신사업 전환 등 공정전

환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1회용품 다양으로 배출하는 커피전문점, 장례식장, 지역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및 세척 지원으로 1회용품 150만개를 대체하는 등 도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하 전기차충전시설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지상이전도 추진한다.

또한, 생활 속 유해환경 개선과 환경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대책을 강구하고 완충저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환경단속 사전예고제와 더불어 신생 배출사업장 인큐베이터 추진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성질향취 약가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함께 친환경 자재로 벽지·장판을 교체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등 배어

난 생태환경자산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북’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문수산편백숲, 익산치유의숲 등의 연내 개장과 더불어 지리산 산림약용식물 특화단지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는 등 국립 산림휴양·치유 거점 기반을 확대하고, 도내 생태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삼천리길 조성 등 동부권 대표사업 추진, 산림과 관광을 연계한 산골 목공예마을 조성 등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을 다진다.

특히,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민 모두가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상수도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소규모 급수시설 광역 전환 등과 함께 취약계층 493세대의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을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홍수나 가뭄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용담댐·옥정호 등 광역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담댐 유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물관리 실천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국가하천 승격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확대, 지방하천 통합 DB 구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물 안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전 지구적인 공동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는 노력과 함께 생활 속 유해환경은 찾아 없애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로 보편적인 물복지를 실현”하면서, “청정하고 빼어난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해 도민들의 삶에 심을 채워주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에코힐링 1번지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설 맞이 목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시행

소비심리 회복 및 소비진작 위해 명절 한달간 10% 할인판매

목포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명절인 설을 맞아 목포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함으로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할인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QR결제형) 3가지 유형 모두 동일한 할인율(10%)이 적용되며 구매일은 1인당 월 70만원으로 지류+모바일 20만원, 카드 50만원이다.

구매는 지류상품권의 경우 지역내 농축협, 광주은행, 수협, 신한 등 판매 대행점 55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모

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목포사랑카드에 광주은행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여전히 어렵지만, 민족 대명절인만큼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명절을 맞아 커지는 소비의 부담을 덜



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배/기자

완도군, "여객선 반값에 타고 섬 여행하세요!"

2월 1일부터 일반인(군민 제외)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시행



완도군은 관광객의 여객 운임비 부담을 덜어주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일반인(완도군민 제외) 섬 여객선 반

값 운임 지원 사업은 청산도, 청산 여서도, 노화(넙도), 소안, 보길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여객 운임비를 원하는 사업이다.

여객선 운임비가 지원되는 항로는 완도-청산, 완도-여서, 화흥포-동천-소안, 땅골-산양, 땅골-넙도이다.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공공차, 65세 이상 경

로, 장애인 할인 등을 받는 경우는 할인을 우선 적용한 운임비의 반값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123,343명에게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금이 감소하여 약 83,000명의 관광객 및 일반인에게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섬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운임 부담을 줄이고, 최근 섬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섬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바란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사와 협의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진도군, 엄마와 아이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호평

건강간호사 가정방문...건강상담과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진도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실시로 대상자의 연이은 호평을 받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는 지속적인 관리로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의 건강한 출생을 지원한다.

현재 진도군은 임신부와 출생아 수가 176명으로 임신부 대상 건강평가로 기본방문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사례발굴과 회의를 실시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구성된 ‘보배섬 엄마 모임’을 운영해 엄마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정서적 소통을 하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산모는 “초산이라 임신과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직접 집으로 오셔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보배섬 엄마 모임에도 참여해 공감대를 가진 엄

마들을 만나 이야기 하다보면 육아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주위에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 올해부터는 여성장애인 대상자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또한 지원한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 확대 지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지원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초기의 건강한 관리체계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2월부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모바일 先 접수(2.1.~2.18.), 주소지 읍면동 방문·모바일 동시 접수(2.19.~3.15.) 연간 60만 원 지역상품권, 상·하반기 30만 원씩 분할 지급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받은 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은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스 경상북도」 앱*에서 2023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2월 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이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과 지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2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4~5월 30만원, 하반기 8~9월 30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시군 모든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농어촌을 지키며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 신청기간** 24. 2. 1. ~ 3. 15.
* 온라인 첫 접수 (2.1~2.18), 온·오프라인 (2.19~3.15)
- 신청대상** (온라인) 경상북도 모이스 앱
* 2023년 농업·임업·어업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인 경우만 가능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2023. 1. 1 이전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 지급액** 60만원/년
* 상반기에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 (4~5월, 8~9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새마을운동대학원 개도국 유학생 격려의 시간 가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새마을운동의 경험은 인류 공동 발전에 기여할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고국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9일 (월) 오후 2시,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개도국 유학생 (16명)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광역시는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격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전문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해 38개국 180명의 새마을개발전문가와 글로벌 리더를 배출했다.

이날 유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에티오피아 출신 톨로사 구투아브라함 (28세, 남) 학생은 "경제개발의 성공 모델인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한국에

왔고, 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새마을운동 관련 학문과 실무경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기회를 주신 대구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25 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과거 인연이 있었던 짐바브웨, 미얀마 유학생들과의 답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경험은 인류 공동 발전에 기여할 소중한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건설위기 속 「주택·건설경기 상황 점검 회의」 개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고금리와 고물가 등 건설경기 위기 속에도 시와 부산도시공사 모두가 마음을 합쳐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면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해

부산시는 지난 29일, 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주택·건설경기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주택시장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시는 지역건설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건설·주택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왔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건설경기 침체 속 지역 주택·건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속된 고금리 고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eobject Financing, PF) 부실로 인한 태연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건축·주택시장 침체 위기 속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한 서민 주거의 불안정,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등에 따른 인력·예산 등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지역건설 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부산건설

활력회복 BIG 패키지') 및 ▲부산도시공사의 건설위기 대책 보고 후, 참석자들과 건설업 위기 대응책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 정책으로 '부산건설 활력회복 BIG 패키지'를 발표했다.

'부산건설 활력회복 BIG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공사 물량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및 세계 금융지원을 통한 수요확충 ▲바텀업(Bottom-Up) 중심 지원으로 건설업계 요구사항 적극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신속 긴급 지원 등이다.

특히, ▲건설정보 공유를 통해 건설 관련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 통합·제공할 '온라인 상생플랫폼' 구축 ▲'건설업계 전체 상생협의체' 구축 ▲대형공사장 현장 책임자와 부산전문업체 간 직접 만남을 통해 협력의 장을 마련할 '현장멘토링데이' 개최 등 부산지역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존 대기업 상생데이 후속으로 상생의 밤 등을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

고, 찾아가는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 103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전세사기피해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로 단축해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지방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건물 시설관리도 지원 중이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 임차인 피해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금융 지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도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반영 관련 추진 경과 ▲지역건설업 유관기관들과 소통 노력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국토부 지침 개정 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상승분 반영을 위해 그동안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업계와 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국토부 조정에 따라 전향적으로 함께 고동 부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은 "이날 초정부가 금융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부동산 PF 정착률과 사회간접자본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주택·건설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 등 건설경기 위기 속에도 시와 관련 기관, 건설현장 모두가 마음을 합쳐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면 주택·건설경기 회복도 한층 앞당길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주택 건설 경기회복이 부산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예천군, 설 맞이 예천사랑상품권 25억 특별 발행

예천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 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예천사랑상품권 25억 원(종이류 9억 원, 모바일 16억 원)을 특별 발행한다.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종이·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고, 구매 한도는 한시적 (2.1.~2.29.)으로 각각 종이류 30만원, 모바일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총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종이류의 경우 판매 대행점인 NH농협,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30개 금융기관에

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의 경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 검색 후 다운받아 가입 하면, 10% 선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어진 군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예천사랑상품권을 특별 발행하게 됐다."면서 "2월 설 명절을 맞아 예천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청송군, 지적재조사사업'금곡1지구'주민설명회 개최

청송군은 지난 23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최첨단 디지털 측량으로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등)을 바로잡아 지적불합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청송읍 금곡리 843-18번지 일원 845필지(488,386㎡)이며, 국비 1억5천8백만원을 들여 2025년까지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 개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토지경계의 정형화로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1회 영양 쏠쏠 겨울축제, 다음 겨울에 또 만나요

방문객 K(40세, 여), "주변 겨울 축제가 취소돼, 쏠쏠 겨울축제 소문을 듣고 처음 영양을 방문했는데 축제 바가지 요금은 한날 기우였고, 아이들과 맘껏 즐긴 멋진 추억이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 "다음 겨울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영양읍 현리 670번지 일원) 영양군과 영양군 체육회 공동 주최로 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 '제1회 영양 쏠쏠 겨울축제'가 방문객 4만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쏠쏠 겨울축제는 매일 얼음 두께를 측정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으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우천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28일까지 축제기간을 연장했다.

방문객들은 반변천과 현리 앞산이 만나는 자연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빙어낚시, 얼음열차로 겨울을 만끽하고 땅 위에서는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

축제장을 찾은 김OO(40세, 여)는 "주변에 겨울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돼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쏠쏠 겨울축제 소문을 듣고 처음 영양을 방문했다."라며 "축제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했었는데 바가지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고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값진 추억을 남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영양 쏠쏠 겨울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음 겨울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히로시마현과 상생발전·우호교류의향서 체결

이철우 지사, 일본과의 우호교류증진과 함께 관광객 유치 기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9일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해 양 도-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및 임종식 교육감도 동행해 양 도-현 의회와 교육청의 교류 추진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경색된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11월 초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된 한일지사회회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가 2020년부터 경상북도와 우호 교류를 제안한 히로시마현 지사와 만나 경색된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 복원에 합의했으며, 이번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양 도-현은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히로시마 주니어 국제포럼", "대학생 어학연수"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양 지사는 이번 체결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육, 청소년, 인재육성, 문화·관광,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히로시마현은 경북도와 인구가 행정구역이 비슷한 공통점을 비롯한, 조선통신사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교류의 역사가 있으며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이쓰쿠시마 신사와 원폭 돔으로 한국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이번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로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일본 출장을 시작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4년에는 60년 만에 찾아온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한일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 증진은 물론, 한류문화 확산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시행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

문경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연휴 전에는 실맞이 환경정화 활동 및 유통업체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연휴 기간 폐기물 수거일을 적극 홍보한다. 연휴 중에는 폐기물 기동 청소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하는 등 비상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휴가 끝난 뒤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 대로변, 공공시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 곳곳에서 마무리 대청소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 등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폐기물 수거일자를 사전에 확인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국중부발전-봉화군, 양수발전소 유치 감사행사 열어

한국중부발전과 봉화군은 29일 봉화 청소년센터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감사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지로 봉화군이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현국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유치위원장, 각 사회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과 한국중부발전 사장, 처장 외 22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추진경과보고,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유치 결의를 다지고 압도적인 동의율을 화답하는 등 큰 힘을 실어주시는 지역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봉화군과 상생 관계를 구축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개칭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따른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봉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그동안 적극 지지해 주신 군



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2035년까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에 중부발전과 협력해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양수발전소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약 10년의 공사 기간 동안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봉화군청 개칭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 지역자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수발전소 건설(약 10년) 및

가동기간(약 60년) 동안 지방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직접 지원금 1,200억 원과 고용효과 6,700여 명,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1조 3천억 원 등 막대한 직간접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채용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발전소 인근 지역의 문화, 복지시설 확대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주변에 홍보관을 비롯한 관광시설을 개발해 분천산타마을,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K-베트남 밸리, 청량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구축해 관광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량 조절이 가능해져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 농업용수 부족 해소, 산불진화 용수 확보 등 날로 커져가는 일상생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남산선비마을 남선식당, '영주만들국 밀키트' 개시

우리밀과 영주한우로 만든 궁중만들국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영주시는 남산선비마을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남선식당이 유기능 우리밀과 영주한우로 만든 '영주만들국 밀키트'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주만들국 밀키트는 남선식당의 대표 메뉴인 정통 궁중요리 '영주만들국'을 가정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간편조리식품이다.

남선식당은 지역의 재료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의 철학으로 건강한 영주 농축산물을 사용한다. 간식 메뉴인 분식만두와 달걀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영주만들국은 우리밀과 영주한우 뿐만 아니라 참나물, 유기능 원목재배 표고버섯, 숙주나물, 취청오이를 사용해 풀깃풀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또한 12시간 동안 영주 한우 양지와 사골, 갈비뼈로 깊이 우려내고 광목으로 여러 번 육수를 걸러내어 깔끔하고 깊은 국물 맛도 느낄 수 있다.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김경아 사무총장은 "남선식당의 만들국은 재료가 살아있고 모든 재료의 맛을 깊이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영주의 남선식당, 그리고 남산선

비마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남선식당의 유기능 우리밀 정통 궁중만두를 극찬했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기능 우리밀과 영주한우를 통해 영주의 특색을 살린 밀키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산선비마을 마을기업은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들과 주민이 모여 만든 공동체로 △남선식당 △카페남선 △남선 프리미엄 스테이 △남선청년주택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남산선비마을은 국토부 '2022년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접수리 대상, '2023년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균형발전 경제활력분야 대상을 수상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또한 남산선비마을 마을기업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한노인회,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파트너십 단체를 통한 기부 및 남선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주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

16종 관리품목 중점 관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경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간 협업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16개 관리품목 중점관리, 물가책임관 지도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 상향,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등을 중점 추진해 생활 물가잡기에 나선다.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은 제수용품 등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해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 점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한다.

또 읍면동 물가책임관은 대상품목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등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을 대상으로 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함께 펼친다.

시민들의 생활 속 필수 카드인 경주페이는 2월 한 달 동안 캐시백 혜택 한도

를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사용 한도는 월 40만원으로 매월 동일하다.

지류형(5%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카드형(1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더불어 농특산물 10~20% 할인, 경주천년한우 최대 30% 할인,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금액 최대 30%) 행사도 진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설맞이 할인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명절을 맞아 생활물가에 민감한 주요 품목 살피고, 서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2024년 안동형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총력

282개소 운영 중, 지정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 제공

안동시는 선진화된 외식문화 정착과 외식업소 안심 이용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2024년부터 안동형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영한다.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선진화된 식사문화의 개선을 위해 스텝어머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개인접시, 집게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수저포장, 살균 등) △종사자 마스크·위생모 착용 등 생활 방역 3대 수칙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작된 안심식당은 현재 282개소가 운영 중으로 안심식당 지정표지판 부착, 위생 마스크 지급, 카카오톡.티맵과 네이버에

정보 게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안심식당 지정으로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소개 받고, 이를 통해 안동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올해 신규 안심식당 신청은 3월 시행할 예정이며, 안동시청 누리집에 지정기준이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김남주 보건소장은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식(食)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사회보장 수준 대폭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등 보장수준 전년대비 대폭 13.16% 인상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 행복기동대 등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경상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 4백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거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 ~ 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 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월62만 원 → 71만 원 인상, 대상범위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기존완화 및 확대(재가의료급여(6개시군→전시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인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천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사업 확대로 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 원의 자활근로 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①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②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③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다.

1인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AI, 메타버스 등 에듀테크 기업들과 소통의 장 마련!

대구 에듀테크 지원기업 25개사 및 실증 참여 교원 간 성과 공유 등

'2023년 대구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성과교류회'가 1월 31일 호텔인터파크 대구에서 열린다.

올해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구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는 수성구 알파시에 있는 DNEK 융합테크비즈니스센터 내에 위치해 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담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역의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과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대구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통해 올해 실증에 참여한 10개 기업과 52명의 교원 간의 실증 성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에듀테크 개발지원, 상용화 지원, 판로 확대 지원을 받은 15개의 대구 에듀테크 기업들의 성과를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라 될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에는 드림아이디어소프트의 '메타버스 학생 상담 챗봇' 스네모감성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코딩교구' '스해피에듀테크의 AI 수학 보조교사 시스템 등이 있으며, 에듀테크 기업 지원 사례와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증에 참여한 기업과 교원의 실증 성과와 실증 참여 소감에 대해

서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시블록체인과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를 통해 에듀테크 기업들의 기술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KT AI 보이스봇으로 농기계 임대예약 자동화 도입

청송군은 2024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 업무의 상시 예약체계 구축과 자동화를 위하여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센터 3개소(본소 및 각 상담소)에 KT AI 보이스봇을 도입하여 농기계 임대예약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I 보이스봇은 상시 전화예약시스템으로 청송군농업인은 AI 보이스봇의 '양방향 대화'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임대장비 목록과 임대 가능 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농기계를 예약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의 표준 명칭 외에도 유익어 추가 지정이 가능해 농업인이 자주 사용하는 명칭으로도 농기계를 선택해 임대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군은 시보이스봇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북지역 사투리 음성학습 등 사후관리로 AI 성능을 고도화하여 AI 보이스봇을 통한 임대관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농기계 임대예약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농업인의 편의성과 농업 기계화를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농가경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성과관리 종합평가로 군정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영양군은 지난 29일 2월 확대간부회의 시 '2023년 영양군 성과관리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7개 우수 부서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성과관리 종합평가는 주요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에 대한 자체종합평가로 군정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필요성에서 2021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7개 부서(의회사무과 제외)이며, 실적기간은 2023년도 1년 간으로 평가는 정량, 정성, 가감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성과평가 우수부서는 최우수 종합민원과, 우수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장려 건설안전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등 총 6개 부서가 선정됐으며 산림복지과는 전년 대비 6계단 도약해 노력상을 받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중앙 및 경북도 주요시책 평가와 연계한 성과 관리 종합평가는 군정 현안 및 역점사업의 실행력을 군민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평가실적 향상에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전략 본격 논의

1.29. 09:00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개최...

시장을 비롯한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 참석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로 빠르게 도약하기 위해 부산시의 모든 기관이 하나 돼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오늘(29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 시장의 주재로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시의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과 '부산다운 가득한 공간 혁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설 명절 민생안정 등 주요 현안에 기관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 제정 방안과 물류·금융·교육 등 기관·실국별 주요 전략 분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방안을 듣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25일 부산을 사람·자본·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담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글로벌 물류·금융·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특별법안'의 차별 없는 통과를 전제로 전면적 규제 혁신과 특례를 활용한 물류·금융·교육 분야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이어서, '세계로 향하는 부산다운 건축' 추진 방안 등 품격있는 삶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다운 가득한 공간 혁신'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시 건축주택국장은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 제도로 건축의 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하고 보행친화형 15분 도시를 조성하는 '세계로 향하는 부산다운 건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트렌드·문화에 맞춘 디자인을 반영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공공디자인 도입과 부산형 우수디자인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육외광고물 자유시구역'으로 선정된 해운대구와 지난해 12월 29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영구가 지역 중심 특화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규제혁신과

세계 감면 등으로 부산을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국제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차질 없이,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 전체가 하나의 글로벌 특구로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모든 분야에서 다시 살고, 찾고 싶은 확신을 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기관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당면 현안 추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혁신적 건축과 도시디자인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만큼, '색'과 '라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으로 통합적 심미성을 확보하고 다양성과 조화로우면서도 세계적(글로벌)인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써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태/기자

남해군 설맞이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최소 3만 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8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한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스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이

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영등포구,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경인로 일대 환경 개선 마무리 '박차'

올해까지 총 264억 원 투입...경인로 일대 지역 활성화 기대



영등포구가 경인로(영등포역~도림천 사거리)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래동, 영등포동 등 관내

기계 금속 공장이 모여있는 원도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구는 2017년 2월, 해당 지역이 도시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후부터 ▲주거·산업환경개선, ▲생활 인프

라 확충, ▲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 등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64억 원(국비 12억 원, 시비 251억 원, 구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초 계획했던 16개 사업 중 총 11개 사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등포 소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산업지원 센터 시설'과,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영등포역 공간 개선' 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경인로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 279개를 교체하고, ▲기

계·금속 제조사업장 지원을 위해 160개의 집진기를 설치해 주었으며, ▲대선제분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부 환경 개선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현재 진행 중인 ▲문래 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 및 민간분야 재생사업 등 남은 5개 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본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영등포구의 원도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안심하고 맡겨주게!" 강남구, 설 명절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글 품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개, 고양이 모두 포함)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강남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등록 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반려견 순회 놀이터를 올해도 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구청 주차장, 개포서근린공원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한 순회 놀이터를 통해 도심 속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 명절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쉼터를 운영,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2024년 1월 기준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구는 올해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 구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려견 돌봄 쉼터를 오는 설 명절부터 시작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6개의 동물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 동물 등록을 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구청 홈페이지의 구

아울러 반려견을 기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경우 관내 위탁업소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등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반려동물 가구가 이웃들과 공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금천구, 택시 타고 아기와 편하게 외출해요 '서울엄마아빠택시'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택시 포인트 10만원 지급

금천구는 외출 시 유아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의 이동편의를 위해 1월 23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영아 1인 당 1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시행 시기가 1월 말인 점을 고려해 22년 1월 출생한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올해 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배려했다.

신청은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3촌 이내의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용 모바일 앱(i.M, 아이엠택시)에 주민등록 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이름은 표기,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표기 된 것)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최대 2주 이내 전용 앱으로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4년 12월 15일까지고 종료일 이후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예약비를 폐지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택시 이용은 전용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유모차처럼 큰 짐 때문에 아이와의 외출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에게 '서울엄마아빠택시'라고 응답했다. 친절 및 안전 운행(96.5%), 호출 편의(94%), 신청절차 간소(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편의(81.3%)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3년 시범사업에서 택시를 이용한 10명 중 9명(92.2%)이 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친절 및 안전 운행(96.5%), 호출 편의(94%), 신청절차 간소(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편의(81.3%)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유모차처럼 큰 짐 때문에 아이와의 외출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에게 '서울엄마아빠택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를 둔 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를 둔 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새기고(인쇄), 밝히고(조명), 잇다(봉제) 도심산업을 스토리텔링하다...중구 인더스트리트 지도 제작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 도심 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스토리텔링하여 지도 제작

총무로 인쇄 거리엔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삼촌 오트바이 '삼밭이'가 있다. 거대한 크기의 종이 다발을 싣고 골목을 오가는 '삼밭이'와 지게차의 모습은 총무로 인쇄 골목에선 흔한 풍경이다. 총무로에 인쇄 골목이 조성된 배경은 무엇일까?

신당동 일대를 걷다 보면 소규모 봉제공장과 패턴·샘플 업체를 한 집 걸러한 집꼴로 만날 수 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의류 샘플, 패턴, 개발, 생산 등 패션 산업의 모든 공정이 가능한 곳이다. 신당동은 어떻게 K-패션의 중심지가 됐을까?

'힙지로(힙한 을지로)'에서 '핫플'이 포진돼 있는 을지로3가역에서 을지로 4가역 사이엔 조명가게가 모여 있는데 이 곳은 대한민국 조명산업의 중심지로 불린다. 을지로는 어쩌서 조명으로 밝혀졌을까?

서울 중구는 인쇄와 봉제, 조명산업 등 중구의 전통 도심 산업에 담긴 역사를 이야기로 엮어 지난해 말 '중구 인더스트리트(Junggu Industry+Street)' 지도를 제작했다. 총무로 인쇄골목과 동대문패션타운

의 역사는 600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03년 활자를 주조하고 도서를 인쇄하던 판공인 주자소가 이 자리에 있었다. 이후 서울의 크고 작은 인쇄업체가 모여들면서 총무로 골목은 오늘날까지 종이 위에 역사를 찍어내고 있다.

지금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조선시대 훈련도감 군사들이 무예 훈련을 하던 곳이다. 군인들은 급료를 제때 받지 못해 국가에서 받은 포목을 팔아 생계를 꾸렸는데, 이 때문에 동대문 주변에 포목 시장이 형성됐고 이것

이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종합시장까지 이어졌다. 시장과 가까운 신당동엔 자연스럽게 패션·봉제 산업이 자리 잡았다.

을지로 조명산업은 196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건축자재 관련 업체들이 을지로에 자리를 잡으면서 발전했다.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 도시의 공장 시설들은 교외로 이전하지만,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생활 밀접 업체들은 도심에 남았다.

중구는 각각의 산업이 뻗어나간 지점

9곳에 스토리를 입혀 중구 인더스트리트 지도에 표시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자문해 역사적인 고증도 마쳤다. 지도는 대형 조형물로 제작해 세운3소공원,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을, 신당누리센터 앞에 각각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중구 인더스트리트 지도를 활용해 도심산업 도보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도심산업을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인쇄센터, 의류패션지원센터에서 산업 체험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을지로157 청계대림상가 3층 동쪽데크)에서는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위메이크 굿즈 인 중구(We make goods in Junggu)'를 개최한다. 인쇄업체와 지역 예술가가 협업하여 제작

한 굿즈 40여 종을 전시하고 작품 제작과정과 제품안내 등 해설도 곁들인다. 전시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강성원/기자



의회 HANAM CITY COUNCIL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활발한 외교 펼쳐

주한유럽 연합대사 “올 하반기 유럽대사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방문하고 싶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7 오후에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와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주한유럽 연합대사는 “올림픽에 꼭 오고 싶었는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인사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26개국의 EU대사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한 유럽연합대사님은 친강원인사”라며, “2023 세계 산림엑스포에 이어 이번 올림픽 행사에도 와주셨다”며 감사를 전했고, 하반기 방문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주한 유럽연합대사님을 비롯해 26개국 EU대사님들께서 우리 도를 찾아주신다면, 도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하겠다”며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참가 선수 1,800여명 중 유럽연합국가 선수가 860여명으로 절반에 달한다.”며, “유럽이 동계올림픽을 최초로 개최한 곳인 만큼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현재 메달 순위 10위권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곳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럽 청소년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강원문화도 많이 체험하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와 유럽연합대사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경제 등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에 참석 중이다.

김 지사는 유럽 연합대사에게 강원별

로 만든 원소주세트와 강원특별자치도와 몽초의 배지가 담긴 복주머니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이후, snow 평창 페스티벌 한마당 체험장으로 이동해 한국 전통의 겨울음식과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고, 강원유무형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미술작품화한 전시관을 찾아 함께 관람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4 동계청소년 올림픽 기간 해외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강원외교의 광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자매 우호도시 5개국 7개 지방정부의 정부대표단, 주한 캐나다대사, 주한프랑스 대사, 주한 영국대사와 만남을 가졌고 IOC 위원들을 월정사에 초청해 강원문화유산을 널리 알렸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확대간부회의서 ‘농정분야 5대 혁신 과제’ 주문

아산시, 29일 확대간부회의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농정분야 5대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2주 동안 17개 읍면동 2024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새해 아산시 주요 농정시책을 설명해 드리고, 농정 민심을 청취했다”면서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농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농정분야 혁신이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물 혁신 △기술 혁신 △자금 효율성 혁신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혁신 △급식 체계 혁신을 5대 과제로 주문했다.

우선 생산성 혁신을 위해 아산시 미국종양처리장(RPC)을 단일화한다.

박 시장은 “소규모 고품 농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RPC 단일화는 생산성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올해 법인 설립을 통한 RPC 2개소(둔포·영인농협)를 우선 통합한 이후, 관내 전 농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술 혁신을 위해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지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는 일반 농업 업무에 치우쳐 있다”면서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늘려 기술지도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자금의 효율성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농업 재해, 보험 가입비로 연 53억 원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별로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재해 발생 시 피해 농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현재 아산시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는 10 부터

18%로, 전국 평균 11%를 크게 웃돈다”고 지적하며 수수료율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유일한 판로인 농산물 많은데, 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직매장 출하 농업인 수수료를 10% 이하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산시 먹거리재단 출범과 함께 농산물 급식 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소비를 높이고, 믿을 만한 지역 먹거리 보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신학기부터 학교 급식 식자재 보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일부 농민, 일부 농협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 아닌, 아산시 전체 농민, 전체 농협 발전을 위해 5대 혁신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경귀 시장은 “지난주 아산시는 2024년 1월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전국 7위를 기록했다.

17개 광역도시까지 모두 포함해 진행된 조사에서 인구 40만도 채 되지 않는 비수도권 도시가 7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트밸리 아산’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분야 성과가 필두로 아산시 모든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서 노력해 거둔 성과가 모여 만든 결과”라고 자평하고 “함께 최고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불법현수막 범칙금 부과 등 단속 강화 ▲보조금 단체관리·감독 철저 ▲남산 안보공원 이전 ▲시 홍보캐릭터 제작 등을 주문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속도”

“내달 베이벨리 비전 선포...실질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지난 22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연 제48차 실국위원장회의를 통해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지난 주 상가 당 500만 원씩 긴급 지원했고, 재해 특례보증자금 200억 원을 상가 당 최대 1억 원 씩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금 모금 계좌(농협 474-01-003445 충남공동모금회)도 운영 중이라며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번 화재 때 피해를 면한 서천특화시장 농산물 판매동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신속 건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내일(30일) 오전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7일에는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비전 선포식을 천안시청에서 개최한다.



김 지사는 “우리 도가 그리는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축인 경기도와는 다음 달 21일 협력 사업에 대해 합의하고, 총선 이후 경기도지사와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모든 실국이 다 같이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기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출산(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에도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저출산 티에프(TF)를 가동, 지난 25일 청년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며 “그동안 산만하게 추진되던 저출산 정책들을 일목연하게 정리, 혼인·출산·이민·입양 제도 개선 등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은 국가에 건의하고, 도가 할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탁상행정이나 나라 아이를 키우거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충남 방문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신속한 발표와 드래

최정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연이어 민생현장 챙겨

괴산군 보금자리 주택 등 방문해 민생현장 목소리 들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9일 괴산군 소수면 행복길든 보금자리 주택, 다자녀 가정, 대한노인회 소수면 분회, 도시재생뉴딜사업비,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김 지사는 소수면 행복길든 보금자리 주택을 방문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지역 인구유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주민들이 정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관계자에 당부했다.

행복길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은 4단계(’22~’26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총 사업비 135억원(도비 66억원, 군비 69억원)을 투입하여 괴산군 4개 면(소수면, 연풍면, 칠성면, 청안면)에 취학아동이 있는 가족의 지역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중에 있다.

취학아동을 1명 이상 둔 괴산군 외의 거주지 등록 가정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주택조성이 완료된 3개 면(소수, 칠성, 연풍)에는 총 30세대, 133명이 입주했다.

이어 김 지사는 소수면에 거주하는 유광명(39), 김영애(39) 부부 슬하 6남매(1남 5녀)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

하고 다자녀 양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괴산군 소수면에 위치한 소수면 노인회분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의 간담을 갖고 시설현황을 점검하며, 어르신들 동절기 안전과 불평 사항을 직접 챙겼다.

충청북도에는 4,245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냉방비(2개월), 난방비(3개월), 양곡비(년 8포대 20kg)가 지원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괴산을 일방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이사랑공터와 괴산허브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2023년 4월에 문을 연 아이사랑공터는 32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91.72㎡ 규모로 장난감 도서관 및 아이 숲 놀이터를 갖춘 지역내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준공된 괴산허브센터는 118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4,356.46㎡ 규모로 괴산 체험관광센터, 유기농 로컬푸드 유통판매장, 청년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이다.

이날 김 지사는 마지막일정으로 괴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아마존

고정화/기자



태백시, 태백산 설경을 만끽하는 2024 태백산눈꽃 전국 등반대회 개최

겨울특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 오늘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10일간 태백산국립공원과 황지연못 등 태백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 중 대형 눈 조각 작품 전시와 더불어 눈축제에 백미라 할 수 있는 ‘태백산눈꽃 전국 등반대회’가 오는 28일 일요일에 시작한다.

태백산 눈축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태백산눈꽃 전국 등반대회’는 해마다 수많은 등산 동호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역사 깊은 등반대회로 태백산 눈축제 대표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4인 1조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유일사와 당골광장에 마련된 참가부스에서 접수·신청하면 된다.

등반대회는 2개 구간으로 진행되며, 1구간은 유일사에서 출발해 천제단, 문수봉을 거쳐 당골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 2구간은 당골광장에서 출발해 반재, 천제단, 문수봉을 거쳐 당골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코스 중간에 있는 심사구간에서 등산에 관련된 퀴즈나 장비 점검 등 심사항목을 평가받고, 등반대회의 수상자가 결정된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2시 당골광장에서 진행되며, 대상(태백시장상), 우승

(태백시의장상), 준우승(강원도 산악연맹회장상), 장려상(태백시 산악연맹회장상) 등 상장과 시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자연보호상(태백산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보호에 앞장선 경우), 가족화목상(가족단위로 참여한 팀), 최다 참가상(단체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경우) 등 이색적인 상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제31회 태백산 눈축제는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NOW OR NEVER-지금, 여기, 태백’이라는 주제로 태백산국립공원, 태백문화광장 및 황지연못 등 태백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유상근/기자



서울시,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방지시설 교체 사업장, 측정 결과 평균 먼지 58.9%·총탄화수소 55.5% 감소 확인

서울시가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에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50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4~5층)은 2,400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서울시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도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연료 ▲흡착 ▲흡수 방식의 '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설치해 정상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저녹스 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 특성 조절 또는 연소 시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NOx)과 연료 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하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신청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 금액은 서울

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동일 사업으로 지난해 총 137개 소규모사업장에 평균 1,4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일반 버너뿐만 아니라 설치 연도 10년이 지난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345개소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474개소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1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교체 전과 비교해 먼지는 58.9%, 총탄화수소는 55.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먼지 평균 측정치는 교체 전 12.5mg/Sm³에서 교체 후 4.9mg/

Sm³,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는 53.7ppm에서 23.9ppm으로 변화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모집 공고하므로 신청자는 지원사업별 신청 기한, 구비서류, 선정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추진

30억 원 투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

포항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22억 원과 함께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층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나 예산 여건에 따라 1~3층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광역 단위 대기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된 노

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일 사업장 내 지원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월 29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층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

기기로서 2025년 6월 30일까지의 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포항시 고원화 환경국장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환경오염 예방 차원 및 근로환경 개선 차원의 환경정책 사업이기에 경제적 부담으로 환경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견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기대감 up!

임상준 환경부 차관, 블루밸리산단(포스코퓨처엠, 자원순환클러스터) 현장 점검 및 간담회 미래 녹색 전략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29일, 경상북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을 점검하고 사용후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을 위해 포항을 방문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과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용지, 경북TP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차례대로 둘러봤다. 임 차관은 국내유일 인조흑연을 원료로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장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은 최종재까지 완전 국산화가 가능해 작년 말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도 인조흑연을 100% 생산해 주목받은 공장이다.

이어서 총 489억을 투입해 2025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용지를 방문해 앞으로의 개발 일정을 듣고 현장 상황을 점

검했다.

진흥시설과 연구시설로 구성하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클러스터는 재활용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와 인증을 비롯해 녹색금융 지원, 재활용 전문인력양성 등 국가 사용후 배터리산업의 통합 지휘소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서 가진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유례없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공업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핵심인 이차전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녹색산업의 열쇠이자,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폐자원"이라며, "특화단지 내 용수공급 방안과 녹색 정책금융 지원 등 이차전지 산업을 녹색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사용후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이차전지 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도시광산"이라며 "경북의 미래 녹색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충북 투자유치 박차, 이차전지 전국1위 위상 굳히기

(주)이녹스첨단소재, 4,400억원 투자협약 체결

충청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이녹스첨단소재(주)이녹스첨단소재 및 (주)이녹스리튬) 간 충청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설 투자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이녹스첨단소재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22,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2028년까지 총 4,400억원 규모의 수산화리튬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실투자가 완료되면 약 1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이녹스첨단소재는 고분자 합성 및 배합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회로 소재, 반도체 소재를 개발·제조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소재 전문기업으로 최근 이차전지 소재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

고 있으며, 작년 4월 수산화리튬 신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근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인한 산업 전반의 불경기 속에서도 이차전지 산업 시장은 탄소중립 가속화 및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수요가 커짐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본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은 현재 이차전지 생산액 및 수출 비중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기술력 있는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최대 이차전지 생산 허브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이녹스첨단소재는 김경훈 대표이사는 "(주)이녹스첨단소재가 수산화리튬 신사업 분야 진출을 시작한 이래 충북과 끈끈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주)이녹스첨단소재는 일본, 미국 등의 선진기업이 독점하던 정보기술(IT) 산업 시장에서 소재의 국산화를 주도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며, 이번 투자협약이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주)이녹스첨단소재가 세계무대 중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울산 남구, 관광객 5백만 시대 도약... '글로벌 관광도시' 추진



울산 남구는 29일 남구청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객 5백만 시대 도약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부권(경남, 전남)을 중심으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구는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신청해 울산 단일사업으로 최대인 445억 원의 사업비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한다.

울산 남구는 이 사업으로 기존 고래

문화특구에 조성된 시설을 하나의 통합형 체류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대상지별 기본구상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 체류·체험형 관광명소 조성 ▲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빛의 마을 조성 ▲ 방문객 중심 참여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며, 미래 관광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의미는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에 445억 원을 확보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남구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미래 1등 산업인 관광산업을 함께 육성해 남구 관광객 연 500만 명 시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울산 남구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이전부터 고래문화특구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교통체계 개선, 특구만의 컨셉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며,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최종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장생포 고래마을 사업을 통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및 콘텐츠를 보완해 장생포가 울산 체류형 관광명소로 재탄생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태화강 그라스정원, 삼호철새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답례품 구입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실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 실현

경북교육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9일간 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공모 신청 대상은 국.공.시립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다.

서류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우편이나 인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2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8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여 곳의 우수 위탁 교육기관을 지정해 기관당 2,600만 원부터 위탁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중현 학생생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행복의성교육’, 2024년 힘차게 시작해요!

의성교육지원청, 2024 의성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경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금) 오후 2시, 의성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임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의성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도리원초 사물놀이팀 외 1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24학년도 의성교육 비전 및 지표, 4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색교육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의성교육지원청은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행복 의성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삶이 담긴 교육과정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실현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의 4대 정책 방향과 16가지 시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2024학년도 특색교육으로 ‘내

장 문화유산 체험을 통한 따뜻한 인성 함양’과 ‘디지털 SW-AI 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2가지를 설정하여, 지역 문화유산 탐방을 통하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 의식을 기르고, 모든 학생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호 교육장은 “갑진년 새해에도 의성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힘차게 출발하자.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행복 의성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의 바탕이 되는 기초.기본 교육 보장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며, 특히 인공지능교육센터와 안전 체험관 등 지역 내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하남시의회 “집행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및 의지 턱없이 부족”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아 초 이음 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적 놀이문화의 긍정적 확산과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놀이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와 유아 전환기 단절 없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아의 배움과 삶’이라는 이음 교육 홍보영상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음 교육 홍보영상은 △이음 교육 △이음 교육과 초등학교 생활 안내 △초등학교 생활 등 총 3종으로 구성되어 필요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다.

영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유아,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기획.참여.제작했으며, 다

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 자막 영상과 수도어도 함께 지원한다.

홍보영상은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깔맞춤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박현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유아교육 홍보영상이 경북 유아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QR코드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 평가한다



부산교육청이 현장 근로자들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손

현장의 위험한 작업 10종 선정해 QR코드 스티커 제작

쉬운 위험성 평가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손쉬운 수시 위험성 평가’ 스티커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다. 작업 중 새로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현장에서 주로 수행하는 ▲중량물 작업 ▲이동식 사다리 작업 ▲음식 조리 작업 등 10종을 위험한 작업으로 선정했다.

QR 작업의 표준 유해·위험 요인을 QR코드 스티커로 제작해 위험성 평가를 간편하고 손쉽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험성 수준을 고·중·저로 구분하는 ‘3단계 판단법’과 유해·위험 요인 목록을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법’을 조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시교육청은 QR코드 스티커를 통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가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QR코드를 통한 ‘수시 위험성 평가’는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근로자와 함께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교육지원청, 그랜이질 학생 맞춤 울진교육 2024 발표

더 단단하게 더 공제하게 그랜이질 7대 맞춤교육 제시

경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2024년 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학교 교육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그랜이질 학생 맞춤 울진교육 2024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및 SW-AI교육에 대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그랜이질 7대 맞춤교육 방향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한 후 에 시를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울진교육 2024는 교육공동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공정한 울진교육』을 비전으로 정하여 그랜이질 7대 맞춤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그랜이질 7대 맞춤교육은 틀에 박힌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울진교육은 “1. 수업, 학생이 주인공이다, 2. 작은학교, 우리 珍 특화교육과정으로 희망을!, 3. 공정, 희망 사다리가 되다, 4.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 프로그램, 5. 따뜻한 힘이 묻어나는 교육 복지, 6. 함께의 가치를 배우는 인성교육, 7. 특색사업 울진! 바다에서 미래를 찾다” 라는 7대 맞춤교육을 통해 신나는 배움, 따뜻한 우리, 함께하는 미래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석수 교육장은 지난 한 해 울진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공정한 울진교육계획이 더 단단하게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다.

장문화/기자



신규공무원 첫 발걸음! ‘우리’함께 걸어요! 경산교육지원청, 2024년 지방공무원 후견인제(멘토링) 결연식

경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월), 경산 관내 신규공무원(7명)을 멘토로 선배 공무원(5명)을 멘토로 하여 2024년 지방공무원 후견인제(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였다.

‘후견인(멘토링) 제도’는 멘토(mentor, 도움을 주는 선배직원)와 멘티(mentee, 도움을 받는 신참직원)가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4년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에서는 멘토-멘티 5팀(12명)이 서로를 위한 행복한 멘토링이 되도록 다짐하는 결연증서를 교환하고, 함께 참여하는 작은 체험을 통해 멘토-멘티 간 서로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양균 교육장은 “멘토-멘티간 정기적인 연락 또는 만남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이 새로운 근무환경에 잘 적응하고 업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이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동현/기자



새내기 공무원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며

영양교육지원청, 신규임용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 개최



경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금), 중회의실에서 올해 신규공무원 3명과 선배공무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을 가졌다.

지방공무원 후견인제(멘토링)란 멘토(mentor, 도움을 주는 선배직원)와 멘티(mentee, 도움을 받는 신참직원)가 한팀이 되어, 임용일로부터 1년간 멘토-멘티 간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배공무원들의 노하우 및 업무지식을 전수받게 된다

김유희 교육장은 “선배 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신규 공무원들에게 지도·조언하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고, 후배 공무원들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해 영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범석 청주시장, '즐겁고 행복한 명절 위해 안전 기할 것' 주문

대민 서비스 향상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당부

이범석 청주시장이 "시민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29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업무 보고회에서 "다음달 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며, "우리 시민 분들이나 고향을 찾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며, "안전·생활 불편 사항 최소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 대응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대피 요령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오송역 명칭 변경 주민 설명회를 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종역 신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역 신설 같은 SOC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 두 가지 타당성이 다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추진 않기로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세종역 신설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원인은 오송역에서부터 세종시 시가지까지 30~40분 이상 걸린다는 데 있다"며, "이는 충청권 광역철도 CTX 설치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송을 주민들이 역명 변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송읍 정주 여건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이라며, "신시가지가 개발돼 정주 여건이 갖춰지는 데는 대개 10~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오송 같은 경우는 최근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해 오송읍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우리가 할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총선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오창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저소득 장애인 2명의 장애인 등록을 도운 일이 보

던 바 있다"면서, "이처럼,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겨울철 눈과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철저히 점검하고, 포트홀 등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해 시민 위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가 1년 반이 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인 것 같다"며, "각 부서별, 담당자별 역점적으로 추진할 일에 대해 더 열정을 갖고 함께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 "기후동행카드 점점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 도입해나갈 것"

기후동행카드 사용 관련 현장점검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27일 첫차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찾아, 기후동행카드 구매·충전부터 지하철, 버스 탑승까지 직접 체험하며 이용 현장점검에 나섰다.

먼저 오전 10시 30분, 지하철 2호선 고객안전실을 찾은 오 시장은 시청역 직원으로부터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권중선택, 무인충전기 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카드를 구매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 5000원권으로 충전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 2호선 상행선에 탑승해 충정로역에서 하차한 오 시

장은 종근당 버스정류장에서 서울광장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472번 시내버스에 승차해 버스 환승 관련 불편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 꼭 현금을 써야 되는 불편 해결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많아, 서두르면 아마 4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며, "신용카드를 활용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나아가서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점 더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같은 생활권인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관련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경기도의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도권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불편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28일 17시까지 일평균 7만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으며,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 34만건(버스 19만 7000여건, 지하철 14만 9000여건)이라고 밝혔다.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27일까지 모바일이 7만6000여장, 실물카드가 12만4000여장 팔리며, 총 판매량은 20만장(28일 17시 기준)을 넘어섰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현대시장 찾아 화재복구 상황 살피고 시설 안전점검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는 화재 등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월 29일 동구 현대시장을 방문해 시, 군·구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발생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는 인화성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아케이드가 방화로 인해 불이 확산되면서, 47개의 점포 소실과 1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이날 점검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 점검과 피해복구 현황 파악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 김진서 동구 부구청장, 정기수 중부소방서장 및 전기·가스안전공사는 물론

박기현 현대시장 상인회장도 점검에 참여했다.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구축 상황 및 초기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상인회 조직과 연계된 상인 교육과 관계기관 분야별 철저한 사전점검 실시 등을 살폈다.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은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 오는 3월 준공을 목표로 난연성 재질의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전기안전 수칙 등을 준수

해 화재 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현대시장 화재 피해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해남군, "봄철산불 제로 총력"종합상황실 운영

불법소각 계도 등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해남군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종합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읍면과 긴밀히 연계해 산불 진화체계를 유지하고, 평상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은 13개조, 5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읍면에 배치, 취약지에 대한 순회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소각 적발 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진화복 등 개인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무인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 다발화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계도와 초동진화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도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 자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공원과 또는 소방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최갑문/기자





www.yyg.go.kr

영양 들어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숨어있고...
영양에서 대표되는
영양에서 대표되는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제껏 보지 못한
영양에서 대표되는
영양에서 대표되는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에서 대표되는
영양에서 대표되는
영양에서 대표되는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에서 대표되는
영양에서 대표되는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었다...
영양에서 대표되는
영양에서 대표되는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영양에서 대표되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